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 채용 확대…고용한파 풀리나

한전, 5년만에 정규직 1000명 채용 예고…지난해보다 2배 상승

한전KDN 200명·한전KPS 300명 규모…지역 취업시장 숨통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정부의 신규 채용 확대 방침에 발맞춰 올해 정규직 채용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특히 국내 최대 공기업 한국전력공사(한전)가 5년만에 1000명 이상 정규직 채용을 예고하면서 광주·전남 취업준비생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3일 한전 등 이전 공공기관들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관들의 신규 채용 규모는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9일 열린 '2026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통해 올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를 전년 대비 4000명 늘어난 2만 8000명 수준으로 밝혔는데,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20년 이후 최대 규모다.

정부 방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별 채용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빛가람혁신도시에서는 한전이 채용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한전은 올해 1000여명의 정규직 채용이 예상되며 이는 2021년(1047명) 이후 5년만에 최대치다. 한전은 2021~2023년 코로나19와 러-우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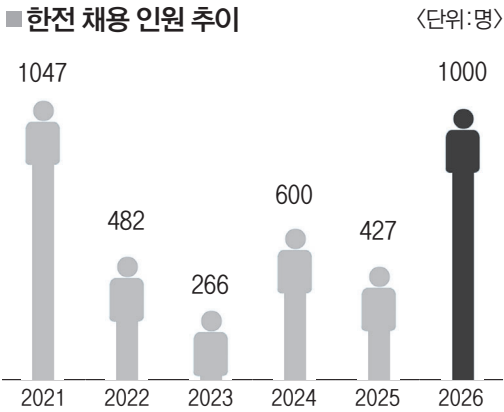
이나 전쟁, 중동 분쟁 등 국제정세 악화로 3년 만에 총부채 200조원, 누적적자 45조원을 기록한 이후 재정난 해소를 위해 정규직 채용 규모를 대폭 줄여왔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한전 정규직 채용 규모는 2020년 1547명, 2021년 1047명, 2022년 482명 등 매년 500여명씩 신입사원이 줄었다. 이어 재무위기 지역탄을 맞은 2023년에는 266명으로 전년 대비 반토막이 났다. 2024년(600명)에는 필요 인원에 따라 정규직 채용 규모를 조금 늘렸지만, 2025년(427명) 다시 고용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 한전은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기조 속에서도 정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 우선 방침을 지키기 위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1000여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전을 비롯한 전력 3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비교적 규모가 큰 공공기관에서도 올해 정규직 채용을 늘린다.

한전KDN은 이달 중순께 정확한 정규직 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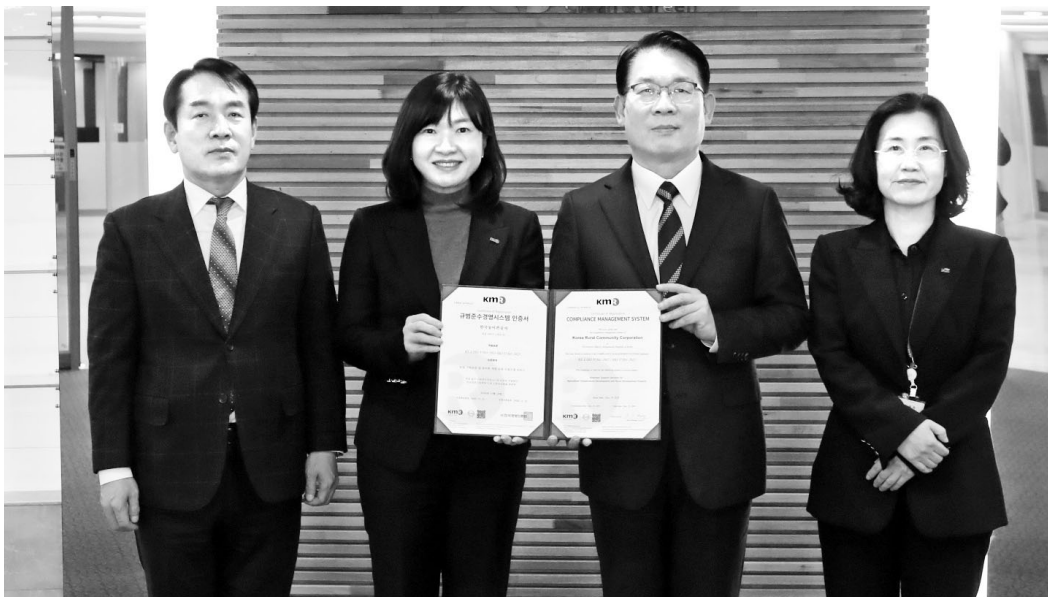


규모를 확정지을 예정이지만, 대략적인 채용 인원은 사무·기술 분야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정규직을 더해 2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2023년(45명), 2024년(97명), 2025년(104명) 채용 규모를 훌쩍 넘어선 수준이다.

이 밖에 한전KPS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 정규직 채용 규모가 각각 300여명, 270여명 수준일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 확대 기조가 광주·전남 청년들에게는 취업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도시법에 따라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은 전체 채용에서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농어촌공사, 규범준수 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경영 투명·공정성 인정 받아

한국농어촌공사(공사)는 “지난 2일 국제표준화 기구(ISO)의 ‘규범준수 경영시스템(ISO 37301) 인증’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규범준수 경영시스템 인증은 법령, 내부 규정, 윤리 기준 등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경영 시스템이 국제표준에 맞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해당 인증을 획득한 것은 세계적인 수준의 윤리·준법경영 체계를 갖췄음을 뜻한다.

공사는 이번 심사에서 경영과정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대폭 높인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를 위해 김인중 사장은 청렴·윤리경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조직문화 혁신을 추진했다. 김 사장

은 조직문화 관리체계인 'KRC Clean Wave 1·2·3'을 새롭게 도입해 윤리경영을 위한 방침을 알리기도 했다.

또 규범준수 문화 내재화를 위한 캠페인 추진, 부패 위험 식별 및 관리체계 강화, 대내외 이해관계자 소통 확대 등을 통해 구체적인 윤리경영 체계를 구축했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이번 인증 취득은 공사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한 단계 도약했음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도 농어민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사가 되기 위해 경영 전반에서 윤리와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명절 장바구니 가볍게…aT, 농할상품권 30% 할인 판매

농식품부와 100억원 규모…15일까지 1인당 최대 10만원 구매 가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와 함께 오는 15일까지 ‘대한민국 농할상품권’ 할인판매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대한민국 농할상품권은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국산 농축산물의 지속적인 소비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모바일 상품권으로 농식품부와 aT가 지원한다.

이번 할인판매 기간 동안 소비자들은 1인당 최

대 10만원의 농할상품권을 30% 할인된 가격인 7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올해 발행되는 농할상품권은 전국 17개 지역별 상품권으로 순차적으로 구분 발행하며, 해당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지역별 가맹점은 ‘제로페이맵’ 앱을 통해 내 위치 주변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이번 발행은 65세 이상 회원의 구매 편의성

을 고려해 우선 구매 기간을 별도로 마련한다. 65세 이상 구매는 오는 8일까지 진행되며, 출생연도가 1961년 이전인 회원은 우선 구매할 수 있다.

이 밖에 전 연령대 구매기간은 9일부터 15일까지로 총 100억원 규모의 상품권을 출생 연도와 지역별 판매 규모에 따라 분배한다.

실맞이 발행 취지에 따라 상품권 유효기간은 오는 28일까지며, 타인에게 선물할 수 없다. 지방정부별 구매 개시 일자는 aT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

한전KPS, 품질역량 향상 지원사업 참여 중소기업 모집

13일까지 접수…품질 시스템 구축·교육비 등 지원

한전KPS는 “오는 13일까지 ‘2026년 1차 중소기업 품질역량 향상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한전KPS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 중소기업 품질역량을 강화하고 발전 정비 산업계의 품질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원 분야는 품질·환경·안전교육 지원사업, ISO(국제표준화기구) 품질·환경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비용 지원사업, 찾아가는 품질시스템 진단 및 멘토링 등 3개 부문이다.

품질·환경·안전교육 지원사업은 전문교육기관인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KSR인증원, 한국표준협회를 통해 품질보증실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내부심사원 양성과정,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심사원 등 14개 과정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한다.

ISO 인증 취득은 ISO 9001(품질), ISO 14001(환경) 분야 인증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분야별로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품질시스템 진단 및 멘토링은 신청기업을 방문해 이형상태 점검 등을 통해 품질 시스템 구축을 돕는다.

지원 대상은 한전KPS 유자격 등록기업을 비롯해 한전·한수원·발전 5개 회사 유자격 등록기업, 에너지밸리 입주기업, 전국 발전정비산업 관련 중소기업 등 발전정비 산업계 유관기업이다.

지원사업 공고문은 한전KPS 누리집,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블로그 및 품질플랫폼, 대한전기협회, KSR인증원, 상생누리, 한국표준협회, 한국원자력산업협회, 전남중소기업진흥원 등 11개 온라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오는 13일까지 한전KPS 품질플랫폼에서 받는다. 접수된 신청 건은 각 분야별 지원 자격 및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한 뒤, 대상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장윤영 기자 zzang@

한파에 전력 사용 상승에도 2월 수급 ‘이상 無’

평균 기온이 낮아지며 난방 등 전력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2월 전력 수급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한국전력거래소가 발표한 ‘2월 1주차 주간 수급실적 및 전망’에 따르면 지난 1월 5주차(1월 26~30일) 전력 수요량은 85.3~86.7GW(기가와트)를 기록했다.

전력 수요량은 새해 들어 1월 1주차에 80GW를 처음 넘어선 뒤 난방용 전력 수요가 늘어나며 지속 상승해, 지난달 28일에는 103.4GW로 집계됐다.

1월 5주차 전력 공급량은 101.2~104.2GW로 예비력 15.3GW 이상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보였다.

2월 1주차에도 전력 수요량 및 예비력은 비슷한

■2026년 2월 1주차 전력수급 전망

〈한국전력거래소 제공·단위:GW, %〉

구분	2.2(월)~2.6(금)
공급능력	100.9~104.6
전력수요	83.3~88.6
예비전력(예비율)	13.0~19.7 (14.6~23.6)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주 전력 수요량은 83.3~88.6GW, 공급량은 100.9~104.6GW로 예비력 13.0~19.7GW의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전망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74 광주일보 74년 - 유튜브 3천만뷰 돌파



한 사람의 보험비지
전 국민의 경제부담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병원 입원 알바】
고수익 보장
보험 가입 필
http://X&3@%M...
알바 댄는데 해볼래?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STOP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알선이란?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GA보험협회